



마음을 열고 사랑해요!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코린토 19,19)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범회



바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긴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의 한 도시 고린토에 도착했어요.



바로 사도는 그곳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사도는 모두를 사랑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스페인의 세실리아 경험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아빠, 오빠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직장 일로 피곤한데 또 저녁을 준비해야 하네. 이 엄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누가 식탁을 차릴 수 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계속 경기를 보고 싶었지만 ‘엄마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자!’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식탁을 차렸어요.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 드렸고, 또 우리 팀도 4대 0으로 이겼어요.